

‘1천석 이상 공연장 방화막’ 의무화…실효성 논란

5월 4일부터 개정 공연법 시행
광주지역 40곳 중 2곳만 해당
나머지 38곳 ‘사각지대’ 우려
“화재 예방·효율적 법 적용을”

올해 5월부터 1,000석 이상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화재사고 예방이라는 당초 취지가 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1,000석 이상 공연장이 단 2곳에 불과, 나

머지 공연장은 화재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어 방화막 설치 기준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5월 4일부터는 1,000석 이상의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 한다.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불길과 유해가스가 객석으로의 확산을 차단, 관객들에게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방화막은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해가스가 객석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해 대피 시간을 확보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오랜시간 관람하는 시설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방화막조차 갖추지 않은 화재 안전 불감증 공연장이 적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광주 지역에서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방화막을 설치하게 되는 1,000석 이상의 종합공연장은 단 2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광주시에는 40개의 실내 공연장과 11개의 야외 공연장이 위치해 있다. 이 중 좌석이 1,0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아시아문화전당(극장1)과 광주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곳 뿐이다.
즉, 이를 제외한 38곳의 공연장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방화막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시 불길과 유해가스로 여전히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업계도 1,000석 이상의 방화문 설치가

사각지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들어 300~4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이 건립되는 추세지만,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된다면 공연장 방화막의 설치가 소유자의 재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사다.
광주 지역의 공연장은 ▲동구 16개소 ▲서구 10개소 ▲남구 6개소 ▲북구 4개소 ▲광산구 4개소가 위치했다.
이처럼 광주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 자치구에 문화시설이 편중되면서 최근에는 시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위해 곳곳에서 소규모 공연장이 생기고 있다. 더욱이 현재 공연장들이 조명 등 무대 장치들의 노후화로 화재 위험에 노출된 만큼 시민들이 공연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연업계 관계자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연장 무대는 화재 위험성이 높고 좌석이 밀집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개정 공연법의 취지인데 법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공연장은 약 500개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1,000석 이상 공연장은 70개 정도이다. 또 최근 3년간 문체부 산하기관의 정기안전검사 결과 방화막 미설치 공연장이 전체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찬기 기자



30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전남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윤 정부,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하라”

전남대 교수 227명 기자회견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30일 헌법적 가치와 역사 정의에 역행하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은미 교수회장 등 전남대 교수 227명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제3차 변제 방안’은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참으로 굴욕적이고 참담한 외교실책이다”며 “특히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배상안은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로서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에 정면으로 배치된 상식 밖의 결정이다”며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채 오로지 일본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윤석열 정권은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일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 채 국익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제동원 배상방식은 대법원의 판결에 입각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해결 방식을 국민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무면허 적발 도주’ 경찰과 추격전 40대 벌금형

무면허 운전 사실을 들켜지 않기 위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0분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해남군을 거쳐 광주 광산구까지 24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약 4.7km 구간을 시속 158km의 속도로 질주했다.
예산도주로에서 검문을 위해 대기하던 경찰 순찰차도 그대로 지나쳐 과속으로 도주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무면허 운전 적발을 피하려면 A씨는 광주에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같은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의 양형사유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

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경보 발령 시 비상대책반 구성

광주시교육청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공동체의 건강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는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건강보호 및 관리대책 ▲미세먼지 대응 모니터링 운영 및 현장점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는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

150 $\mu\text{g}/\text{m}^3$ 또는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 75 $\mu\text{g}/\text{m}^3$ 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 기준은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 300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 150 $\mu\text{g}/\text{m}^3$ 가 2시간 이상 지속 시로 설정했다.
또 광주시에서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체 학교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한다. 이와 함께 상·하반기 각 80교(원)를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특별점검 및 공기정정기 관리실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①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② 중급반 (실전부터 ~)
③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④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⑤ 전문반 모집 (직업,수익가능)

• 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

★ 경매 물건추천 ★

경매일	소재지	종류	감정가	최저가	경매일	소재지	종류	감정가	최저가
3/23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8억9천	6억2천	4/17	김제시 하동	아파트	130억	32억
4/26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50억	28억	4/10	보성군 벌교읍	펜션	130억	5억7천
4/27	광산구 신가동	상가빌딩	13억8천	9억7천	3/27	목포시 무안동	상가빌딩	3억2천	1억8천
4/4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3억7천	3억7천	3/27	김제시 서암동	무인텔	23억	8억2천
4/25	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4억	2억8천	4/3	함평군 월야면	의료시설	35억	12억
4/25	서구 화정동	근린상가	1억1천	5천1백	4/10	목포시 용당동	상가빌딩	9억	6억3천
4/28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	3억1천	1억7천	4/27	나주시 산포면	상가주택	33억	15억
4/27	서구 농성동	잡종지	1억5천	1억	5/1	목포시 옥암동	상가주택	11억	7억7천
4/28	북구 문흥동	농지	2억9천	2억	4/3	함평군 월야면	의료시설	35억	12억
4/12	서구 풍암동	임야	25억	5억7천	4/24	목포시 향동	상가주택	6억8천	4억8천
4/25	광산구 수완동	농지	11억	7억8천	4/13	나주시 빚가람동	식자재마트	54억	24억
4/28	광산구 덕림동	임야	21억	12억	3/27	전주시 완산구	상가주택	6억8천	1억5천
4/28	북구 문흥동	농지	2억9천	2억	4/4	장성군 장성읍	농지	1억7천	1억2천
4/28	광산구 수완동	아파트	7억5천	5억2천	4/27	장성군 북이면	주택	2억9천	2억
4/13	광산구 월계동	아파트	2억8천	1억6천	4/4	영광군 묘량면	공장	8억2천	2억3천

010-6670-9800

062-382-5500